제353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8월21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여성가족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 3
   가. 여성가족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 2016회계연도 결산 ····· 12
   가. 여성가족부 소관

(14시12분 개의)

○위원장 남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임 장관으로 취임하신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지난 5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의 사·보임으로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

합니다.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헌법의 가치인 행복추구권이 여성과 청소년·아동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되 가족공동체와 국가공동체 안에서 가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관련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위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 저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입니다.

여성가족부라는 게 우리나라에 특별히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성 문제라든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화되어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로부터,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정통하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워 가면서 우리의 여성·가족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아영 입법조사관입니다.

채민경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청원심사소위 위원으로, 7월 27일·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해 오신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가족부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구성 이후 새로 임명된 장관으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부처의 목표나 기존에 추진하던 업무의 방향성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국정과제가 발표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정책들도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등을 위한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상정할 201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국회 결산심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에서 집행함에 있어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집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정부의 재정 집행 결과를 확인하시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업무현황보고

가. 여성가족부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4시18분)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여성가족부 간부직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숙진 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인순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비하의 아이콘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여당에서도 인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 청문회 때에 당시 장관후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당시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국무위원회의에 참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건의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바담 풍, 바담 풍' 그러면서 국민보고는 '바람 풍, 바람 풍' 그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 갖고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춘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하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정춘숙 위원님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장관님의 태도 내지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 시절에 질의 답변했을 때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장관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이야기를 일단 자료로 정리·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청문회 때 약속드린 대로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구두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제가 사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 그래서 내 소임은 다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미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건의를 했으면 반영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한 번 했으면 '나는 소임을 다했다'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나 아니면 밖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공직의 수장이 됐을 때는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지금 미흡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간단한 거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시한으로 보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한이 언제인지, 본인의 생각은 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인순 조금 전에 자료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아마……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전달은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셔서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김승희 의원님 실로 자료로 제출을 해 줄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잠깐만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남인순 이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자료를 해서 할 정도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탁현민 행정관 관련한 사안인데 탁현민 행정관이 국무위원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나 이런 대표하는 기관도 아니고 행정관인데요. 그런데 그 행적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계 전체 그리고 여성 모두가 다 분노할 만한 발언들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청와대에 뜻을 전했다고 하면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냥 '나는 전달했으니까 내 소임은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자료로 정리해서 낼 게 뭐 있어요? 제대로 잘 못하신 것 아닌가요?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은 그런 것에 대한 사과나 '내 활동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이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소임 다했다……

탁현민 행정관이 계속 청와대에서 있는 것 보셔도 그냥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상처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하고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이 문제요, 이 문제를 좀 결론짓고 넘어가셔야지 대충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받고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보고인가요?

○위원장 남인순 지금 장관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소임을 다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무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능력 부족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 남인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너무 한쪽에서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도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업무보고 사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인순 아니, 그런데 그 기본적인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를……

○임이자 위원 여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그렇게 바뀌나?

○위원장 남인순 아니,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좀 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 거지요.

윤종필 위원님이……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은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업무보고 받고 진행해도 괜찮은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파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남인순 잠깐만요, 저한테 질문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필 위원 공직자라는 것은 일의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

을 하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도덕성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했다고 언론보도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연 누구한테 건의를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까 답변에서 더 얘기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아까 서면으로 요청하셨으니까요……

○임이자 위원 이것 안 됩니다. 업무보고조차도……

○위원장 남인순 그러면 간사님들 간에 지금 모이셔서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오늘이 현안 질의고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하면 현안이 질의가 될 거고…… 저는, 지금 아시고자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그 서면 제출한 걸 보고 현안 질의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누구한테 보고했으며 어떻게 보고했으며,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보고 받고, 어차피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고 또 결산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에 내심은 좀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돼서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서면보고 받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물어볼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렇게 의견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 갖고요, 임이자 위원님 지금 두 번째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할 때 하셔도, 시간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지요.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신보라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또 다른 말씀……

○정춘숙 위원 저도……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일단 간사 간 얘기 좀 하고요.

○위원장 남인순 간사 간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정춘숙 위원 예, 정회를 그냥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그다음에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정회를 그냥 하는 것보다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보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면서 간사 간에 회의를 좀 하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셔 가지고, 신보라 위원님께서 먼저……

○임이자 위원 오늘 업무보고와 결산을 해야 되는 내용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난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말씀 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난 청문회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는 건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 하라는 둥 질의 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지금 장관님 인사말씀을 보면 온통 모두가 다 성평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 성평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와대조차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데서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는 국민들 볼 낯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지 업무보고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하신, 신보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잠깐 정회해 주시면 저희끼리 정리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용현 위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아까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

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 오늘 오셔서 처음에 그 얘기를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유감을 표명하신 것, 그다음에 일종의 전했는데 진전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은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도 있고 결산보고도 있는데 저희가 정회를 하면서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서면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서면으로 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유감인 것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에 더 노력할 것인지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저희가 이것 하는 중간에 그 서면 자료를 받고 다시 진행을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정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가위 운영을 해 본 경험에 따르면 오늘도 또 저희의……

○임이자 위원 탁현민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신용현 위원 예?

○임이자 위원 탁현민 문제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진행하면서 서면으로 받고, 정회는 중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걸 정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그것은 추후에도 저희가 충분히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저도 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탁현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가부장관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탁현민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시지요. 법적으로 권한이 아니고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후에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상황에서 '전달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유감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후에는 장관으로서 좀 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는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질의를 해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면답변을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 권한도 없으시고 또 법상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약속하신 부분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파행을 시켜야 된다, 정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는 파행까지 가자는 것은 아니고 의논을 한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 위원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가 되면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지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 이제 출범 100일이고 그다음에 임명되신 지도 꽤 됐는데 전달한 걸로 과연 장관께서 할 역할을 다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지금 어떠한 각오로 장관직에 임하고 계신지, 과연 이런 장관분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탁현민 행정관을 사퇴시키고 안 시키고는 청와대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장관의 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첫 출석인데 첫 출석부터 이런 모습과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들 앞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도, 대한민국 여성 전체 앞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도 이것을 그냥 언급 좀 하고 업무보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크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결

산도 해야 됩니다. 이것 밤늦게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청와대 일개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업무보고 그리고 결산 문제라고 하는 거기에 그 안건을 넣어서 질의하고 이것도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격에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업무보고 이전에 서로 할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장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그동안 전달했는데 안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는 뭐뭐뭐 할 생각이다' 이런 답도 여기 안 가지고 오셨다면 업무보고 할 자세가 안 돼 있으신 거지요.

여기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야 없이 다 분노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문제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업무보고부터 받자' 이것은, 저는 이게 정파적 이해라든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고 각 당 위원님들과 간사님들 간에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긍하고 따라야 되겠지요.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인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여성가족부 간부 직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 관련 법·제도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고 여성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보호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고 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에 비하여 낮은 여성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 등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 등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각종 지표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직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터넷, 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기존의 법·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촘촘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희 여성가족부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과제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이며 이를 토대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여성비율이 낮은 군인, 경찰 등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젠더폭력이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무료법률 지원 등 신종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박물관과 연구소 혹은 기록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전문 취업훈련기관을 확대해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치유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향상을 위한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사를 포함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정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증가에 따른 자녀양육, 인권보호 등 가족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육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권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성평등은 인권의 출발점이고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청소년·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계획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부 간부 및 소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관은 현재 예결위 일정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이정심 권익증진국장입니다.

김중열 대변인입니다.

황윤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진우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자면,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님입니다.

다음에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십니다.

다음에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입니다.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에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현 위원 업무보고 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신용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지금 장관님 인사말씀에서도 성평등이 인권의 출발점이고 민주주의 완성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여성가족부 업무를 생각을 했고 장관님을 장관 자리에 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문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아까 문제가 됐던 것처럼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저희 여성 위원들이 다 성명서를 발표해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여러 여성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현재 여성 비하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감스럽게도 아직 탁현민 행정관이 현 행정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장관님께서도,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아까 무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그런 사태를 빚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번 건의를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탁현민 행정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더 그 각오를 다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주시기 전에 한번 의견 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장관님,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남인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우선 제가 무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장관이 노력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염려를 하시게 한 것 같아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 노력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더 노력하고 더 건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행 과정에서 향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남인순 예,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 가능하면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각오를 다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집단으로 의사표명을 했고 또 여성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의사표명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인사권자가 장관님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 보고 안 되면 그만 물러서고 하는 거로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님의 심정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인사의 어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인사의 이런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신용현 위원님의 충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

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약속을 하고 나름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은 인사권자가 장관님이 아니시고 또 그래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그로 인해서 오늘 처음 이루어지는 이번 업무보고와 또 결산에 지금 참석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실은 우리는 의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어떤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촉구할 건 또 한편으로는 촉구하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여기 참석하셔서 보다 나은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로 바꿔 나가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지금 탁현민 사건에 대해서 같이 유감을 갖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고 또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저는 국민들이 국회를……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거부할 만큼의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업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가부에 힘도 실어 주고 또 여가부장관께도 힘을 실어 주고, 여가부장관님께서 오죽하면 무력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무력감을 못 느꼈을 거예요. 워낙 많이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표현한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보고에 같이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인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앞에서 장관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요, 또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자료들은 이미 다 봤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 소관 법률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주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안을 마련하는 부분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며, 새일센터 및 창업지원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서 창업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예방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속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서 대중매체 모니터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평등 관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평등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둘째,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을 위한 과제입니다.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성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추방주간을 계기로 예방캠페인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를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여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 및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 조사·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한 박물관과 연구소 설치를 추진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 직업훈련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사관학교인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청소년 동반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출·비행 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대하고, 야간보호 전담인력도 확충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신종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치료재활센터를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고, 2023년에 예정된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민간과 함께 수립하고 청소년 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와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해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소득·재산조회 권한 강화 등 양육비 이행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생활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또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등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다국어 상담 및 폭력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문화자녀에게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여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인·비혼·동거 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다양한 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조손 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이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보수교육 체계를 개편하여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에 힘쓰고, 작은 결혼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성평등 육아 캠페인과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작은 육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명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

2. 2016회계연도 결산

가. 여성가족부 소관

(16시13분)

○위원장 남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여성가족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88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92%인 81억 8700만 원을 수납하고, 6억 9600만 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849억 13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850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2786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금 등 5억 1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81억 1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653억 3100만 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복권기금전입금 1831억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77억 3400만 원 등 총 2016억 원 2200만 원으로 기금사업비 1831억 7100만 원, 복권기금반납금 76억 7300만 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6년도 수입액은 복권기금전입금 852억 3000만 원, 경륜·경정수익금 164억 4100만 원 등 총 1102억 8700만 원이며, 기금사업비 946억 900만 원, 복권기금반납금 11억 7900만 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의 일반현황과 3쪽의 주요정책방향 및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80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81억 870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고, 6억 9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미납액 6억 9000만 원과 청소년유해과징금 미납액 600만 원 등입니다. 6월 30일 현재 미수납금 6억 9600만 원 중 6억 4200만 원은 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2849억 1300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2850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1억 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욕구조사 1500만 원 등 용역계약 4건의 계약이행기간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97.8%에 해당하는 2786억 8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억 3300만 원으로 국립청소년산림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12억 1580만 원 등 용역계약 6건의 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40억 9100만 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계획 취소로 6억 3600만 원, 한국건강가정지원센터 직급보조비 수시배정사업 예산 미배정이 3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등이 3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19쪽 이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정산반납금 등 5억 1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생활기반계정 예산현액은 630억 9100만 원으로 지역의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로 역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1억 6400만 원으로 이는 15년도 말 조성잔액 119억 5500만 원과 복권기금전입금·이자 등 수입총액 1911억 원에서 기금사업비·관리비 등 지출총액 1908억 91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양성평등기금 2016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운용총액은 2016억 22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은 1909억 7100만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총액은 1908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사업별 집행내역은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8억 6300만 원으로 이는 15년도 말 조성잔액 466억 7500만 원과 경륜경정사업수익 법정전입금·복권기금전입금·이자 등 수입총액 1049억 700만 원에서 기금사업비 등 지출총액 967억 1900만 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육성기금 16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총액은 1102억 87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은 1047억 8400만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지출총액은 958억 23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별 집행내역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이하……

○위원장 남인순 실장님, 15쪽 이하는 일단 자료로,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자체수입 증가 등 재원을 다변화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의 경우 전 부처의 성인지

결산 성과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부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을 제시하도록 하고, 통합재정평가나 성과관리제도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인 대외협력강화사업비 35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성인지 교육사업의 2016년도 예산 낙찰차액 7000만 원으로 2017년도에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정보화 관련 사업 낙찰차액 활용 금지원칙 및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도에 사업관리가 위임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센터별로 예산의 불용원인을 파악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업종에 비해 새일센터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새일중앙지원본부의 역할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현실화와 적정한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익증진국 소관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 중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2년 연속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일임함에 따라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일반관리비를 집행함으로써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내역사업 중 피해자 기념사업에서 4건의 사업변경과 2건의 사업 미집행, 4건의 연도 말 계약체결 등 총체적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고서' 제9장 중 편향적 기술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중 보호자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 지원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 집행률 편차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비수급자 현황 및 생계비 소요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보호시설이나 해바라기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제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경우 경찰에서 발견 통보되는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치료재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및 피해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경찰 통보 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상담소, 쉼터 등 청소년 지원기관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중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편성 후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측했던 총사업비 및 설계비 등이 변동되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집행률 수준을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향후 이와 같은 대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인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60%에 불과하며 특히 제주중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경우 2016년 실집행률이 약 6%에 불과한데 이는 당초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

고 예산을 편성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중 건강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 실집행률이 약 80%인데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던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실집행률이 약 90%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대상 청소년들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경로 다양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득유형별 지원가구, 가구당 지원 아동, 취학·미취학 아동 및 아동별 돌보미 사용시간 등을 산출하여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가'형의 지원가구 수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신설한 직급보조비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고 이는 기획재정부의 직급보조비 미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예산이 불용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결산보고서에서 2015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2016년도 수입에 누락하였고 위탁소송 환급금을 위탁소송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위탁소송 집행액이 축소되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는바, 내부 회계규정 보완 등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소수언어 상담원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력충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과다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바 읍·면·도서지역 방문교육서비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글로벌여성리더포럼사업 중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사업의 경우 참가인원을 과소 추계함에 따라 다른 사업예산으로 해당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사업에서 운용되는 일부 프로그램들은 글로벌여성리더포럼이라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발굴·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검토의견 요약본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남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결산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관련해서 방지기본법도 제출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부 기존 예산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방지기본법이나 그다음에 범부처 종합대책기구 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치

하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 수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문기구의 성격이지요? 그래서 실제 이것이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문기구가 범 부처의, 각 부처의 실질적인 성인지적 예산이나 정책 영향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와 여가부가 실제로 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전체적인 성평등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그것을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7월 19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지금 우리나라가 남녀 임금격차가 OECD 1위의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차관을 단장으로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서 향후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권기간 동안 안에 이 부분을 어떤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시급하게 내놓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사업계획에도 나온 것처럼 가족 구성의 다변화 거기에 따른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1인 가구, 특히 1인 여성가구의 문제 중에 주거안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 여성들이 정말 옆집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만 나도 숨을 죽이고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는 1인 가구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1인 여성가구뿐만 아니라 1인 여성노인 가구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함께 1인 여성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내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헌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그리고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도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10대 인권과제 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답을 내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진짜 이 차별금지법을 5년 동안 계속 미루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성평등 강화 문제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에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TF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 형식적인 회의 운영밖에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에서 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실제 이 기관을 어떻게 실질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오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먼저 젠더폭력방지 기본법과 관련된 국가행동계획은 일단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제정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의 신종 여러 형태의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가 구체적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조만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실제 그러려면 조사 그다음에 인력 양성하고 또 그것을 계도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리고 처벌 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편성까지 되어야지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예산편성이 내년에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큰 구상만 밝히고 실제로는 일할 사람도 없고 일할 행정집행력도 없다면 다 말뿐인 것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된 거 아니냐, 짜여진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남녀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5개년 기본계획과 별도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평등위원회가 올해 중에 논의를 계속하고 내년에 구체화되거나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는 성별 임금격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여성일자리 늘리기 기획단 회의를 차관이 단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여성일자리를 얘기할 때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또 다른 하나로 주거안정 계획의 구체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는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이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의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양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기업의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을 출범할 예정이고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면서 미디어와의 공동협력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이정미 위원 일단 내년에 실행돼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제출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빨리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공론화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시든가 아니면 공론화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시든가 그런 내용을 내놓지 않고 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라는 말만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하나마

나한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정춘숙 위원 정서나 행동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치료하는 곳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정춘숙 위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정춘숙 위원 현재까지는 유일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로 그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여가부에서 새로운 치료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디딤센터가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디딤센터에서 학생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제보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교사들은 학생에 의한 성희롱 그리고 폭언·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왔고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받고 혹은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기도 하고 폭력을 당해서 넘어지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교사에게 센터 측에서 '정서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니 원래 그렇다' 이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사후조치나 혹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안정적인 직장 혹은 인권이 보장된 직장을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정서적 문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견이 됐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예방대책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당연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춘숙 위원 예, 그러고 거기다가 이 학생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상급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 폭언 또 부당한 지시까지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인 이 피해자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퇴사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초에 고충처리상담원에게 공식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1년 미만의 계약직이고요. 그래서 제가 디딤센터 입·퇴사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년간 입사자 중에서 기간제 계약직이 총 141명이었는데 그중에 64%가 계약기간이 10개월 이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야 되는 교사들인데 계약 해지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이 짧으니까 전문성을 갖기도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사들을 고통받는 환경에 방치해 온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분들이 스스로 올해 4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84%가 노동조합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직원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피해 문제는 덮고자 했고요.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전체 구조의 변화, 폭력적인 조직문화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을 통해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4개월간 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나 혹은 디딤센터 센터장과 그룹별로 만났습니다. 열세 번 정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노사가 실무협의 하고 단체협상을 네 번 정도 진행을 했지만 개발원이나 센터 측 답은 '어렵다' '안 된다' 주로 이런 거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문제를 은폐하

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리자가 부서원에게 한 말인데, 지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비리가 있더라도……

(녹음 재생)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이걸 다 덮고 가야 된다, 너네가 참아라, 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바는 지금 현재 이 디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런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은폐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장관께서, 여가부에서 직접 이 문제를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인사가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임명된 6명 중에서 5명이 여가부 퇴직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바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도 물론 필요한데 이 기관을 이렇게 위험하고 또 인권침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온 이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 노조 측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정보는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직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을 교체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그걸로는 충분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여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인권침해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사안에 따라서 개선조치를 할 것이고요.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나 인사조치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노력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조직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조직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특히나 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의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되지요?

○입법조사관 이동현 예, 됩니다.

○위원장 남인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현황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장관님, 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7월 5일 날 추경 예산심사에서 대안추경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형의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돼서 7월 2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동안에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은 게 너무 사용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비용 부담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구나 한부모가족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

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2016년 결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48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용요금이 인상돼서 정부 지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 매칭을 해야 되는 가정들이 돈을 제대로 못 대서 이용가구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도별로 그 집행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만일 그런 이유였다면 모든 시도들이 거의 다 같이 줄어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에서 보시듯이 충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 다 썼고요. 주로 돈을 많이 남긴 데가 있습니다. 서울, 광주 이런 데가 많이 남겼습니다. 불용액이 저런 쪽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48억이나 되는 것은 여가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예가 다시 보니까 아이돌봄사업뿐만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저기 보시면 저기 좀 작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그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서울과 광주가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남기면서 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거의 90억 이상을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90억 더하기 49억 하면 거의 140억 이상의 돈이, 그야말로 여가부가 원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저렇게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도의 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수요도 그렇지만 사실 공급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사이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간당 임금도 굉장히 저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됐지만 어쨌건 저희 여가부에서 시도의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용현 위원 저도 보면 이게 한 3년에 한 번씩 그냥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액수도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서 저는 저 액수가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 인구수 비례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를 봤더니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도 사실은 지자체별로 얼마만큼 발굴을 잘 해서 내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런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요 가족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를 맞춰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훨씬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냥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안부 관련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더 이상 엉망진창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국회에서 짜준 예산과는 완전히 틀리게 사업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장관님은 이후에 장관님이 되셨지만 여가부 내에서 책임 있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현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도 그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군 위안부 문제나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용역이 이렇게 배분된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다음 주에 그 연구용역 진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연구의 성과로 가져갈

것인가를 중간단계라도 점검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소위에 가서 다시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돼서 작년 한 해 내내 정말 전 여가부장관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아마 뒤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좀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보고서 발간사업이 있었습니다. 2014년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정부보고서인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입장과는 관계없는 민간 보고서로 변경돼서 발간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보면 진짜 백서라고 불리기에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묶음 수준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도 사실은 현재 재협상 요구를 받고 있는 12·28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보고서 읽어 보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읽어 봤습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지적하신 9장은 아주 센 톤은 아니지만 어쨌건 12·28 합의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내용이 있고요. 1장이나 다른 부분은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치밀하게 잘 쓰인 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1장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많이 거론되지 않던 강제동원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아냈다든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9장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돈을 들여서, 연구비를 들여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필진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사실은 위안부, 군 위안부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는 있지만 영역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해 보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것을 영역하는 작업까지를 제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9장, 화해·치유재단 이사인 연구 책임자가 개인의 견해로 작성했다는 이 9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정조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이런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올해부터는 안 싸워도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이 좀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 피해자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지금 의료비라든지 간병비의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 불용되고 있는 것이 많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한 의의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은 중요한 것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에 사업 지원대상도 좀 확대해야 되고 피해자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포스터도 우리가 좀 더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비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수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뭐 입원은 안 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수요를 미리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는 하고 거기다 지자체들의 추경예산 반영도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조율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요. 앞으로도 이런 성폭력 관련 피해자 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피해자들이 간병비 지원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조치와 현장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고 틈새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시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교도소 내에서 성범죄자들이 낮에는 100시간 내지 300시간 법정교육인 재범방지 성교육 받은 다음에 밤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 만화책 둘러 봤다라는 기사 보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오죽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게 현직 교도관이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인물을 보면서 이게 과연 교화는커녕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효과가 제대로 나겠느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

현행 법무부 지침에는 음란성 청소년 유해 간행물은 성범죄 관련 성인 수용자에 대해서 구독과 반입을 불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유해간행물이 아니어도 정식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간행이 된 19금 만화책이 그게 성관계나 성폭행 내용이 담겨 있어도 교도소 내로 쉽게 반입이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유해 간행물 같은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결정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조항이 있어서 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장관님, 그동안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이런 심의·결정 과정 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조실장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권미혁 위원 이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효과가 사실 없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것 심각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됩니다'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재범 방지 성교육 효과가 전혀 없고, 제가 보니까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없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 내용에 개입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내용,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건지 그리고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기로는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성폭력·가정폭력 하는 데서 이것 측정도구를 아마 건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지요?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지난 2년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건수나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 같아요. 16년에도 40건 해서 총 100건, 1억 7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15년 288건이었던 신청이 16년에는 83건으로 또 신청 건수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욕구, 기대가 많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이런 것 등으로 이게 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제도 보완 대책을

어떻게 취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노력하는데요, 처음 이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초기에 비해서 이후의 신청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사실은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낮은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지원 기간이나 그런 양육비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는 아버지나 그런 경우에 재산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단체의 예산 운동 일환으로 국가재정법에 도입이 됐고요.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장관께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임 장관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각 부처의 성과목표 설정과 달성도 평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애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예로 든 것이 법무부에서 성범죄 등 4대 악 사범 단속 관련 성과목표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법무부에서 한 것대로 하면 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게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임 장관께 '정부가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에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당부를 드렸고, 당시 전임 강은희 장관께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여성가족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치하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조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그것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은 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이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면 그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성가족부가 꾸준히 성인지 예산사업의 선정기준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역시 상당히 기대를 거는 것은 국정과제와 성평등의 관계, 지금 국정과제를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 성평등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인지 예산제도 문제를, 선정기준을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스톱으로 온누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 오늘부터 그 사이트가 뜨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성별영향평가가 얼마나 반영될 거냐, 성인지 예산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려고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기대를 거는……

○금태섭 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목표 달성 이런 게 수치가 나오는데 2016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이 2015년도 70.9%에 비해서 소폭 낮아져서 69%가 됐는데, 이것이 무의미한 게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관님께서는 관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시면 다음번에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기획재정부 측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다른 부서에서 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성평등위원회가 생긴다면, 사실 저희는 이 부분에 제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성평등위원회가 생긴다면 거기를 통해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황당무계한 성인지 관련 달성 목표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새일센터가 있는데 새일센터의 취업자 상용직 비율이 목표치 60.3%에 거의 근접한 58.2%를 달성했고 또 이용자의 취업 건수 증가율이 9.3%로서 목표치 6.5%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2015년 기준에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고용보험 취득률은 52% 그리고 월평균임금은 129만 원 이래 가지고 고용센터나 자치단체 일자리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도 단순한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나머지 지적하고 질문드릴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신종 여성폭력과 관련돼서 법무부 그리고 방통위와 같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가급적 빨리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가 안 됐나요? 화면을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가부에서 제출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그걸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청소년 유해성 광고 게재 인터넷신문 사이트 수가 223건에서 166건으로 줄었고 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한 인터넷신문 사이트 수도 2257건에서 2777건으로 증가한 걸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인터넷신문 중에서 아직도 3313개의 인터넷 사이트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사이트들이 인터넷신문 사이트지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따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휴대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PC보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인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그런 경우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김삼화 위원 그래서 날씨를 검색했는데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선정적인 글과 이미지가 담긴 사이트가 튀어나오는 그런 겁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PC보다는 오히려 휴대폰에 더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선정적이고 유해성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버전으로도 인터넷신문 유해성 광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현재……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실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예.

○김삼화 위원 몇 명이나 있지요, 그 부분은?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2016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예산 4억 2000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48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가부에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는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이 5명이라서 모바일 사이트까지는 점검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과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것과는 조금 틀린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어떻게 휴대폰과 관련된, 모바일과 관련된 인터넷신문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것은 어떻게, 서면으로 하신다는……

○김삼화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답변하고 좀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정·청 회의에서 6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저 표를 한 번 해 봐 주시겠어요?

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총예산이 724억 4000만 원입니다. 총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구당 지원금액이 양육비 월 12만 원, 학용품비 연 5만 원, 가구당 생활보조금 약 45만 원 정도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집행률도 87.5%라서 약 90억 57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문제는 90억 불용 사유를 저출산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 등으로 지급 대상이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대상을 보면 2016년에는 7만 5000명, 2017년에는 8만 1260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물어봐야 돼서요.

○위원장 남인순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김삼화 위원 예.

○위원장 남인순 그렇게 하시지요.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최근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 복지 등등과 관련해서 가장 시스템적 기본이 되는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출생신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출생신고가 되어야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이라든지 또 필수예방접종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상에 편입될 수 있고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시 등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아시다시피 혼인관계가 있을 때는 부모 그리고 혼인관계가 없을 때는 모가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 할 수 있는 경우를 뒀는데 그것도 사실상 지적하자고 치면 본질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법적 요건이 제도를 충분히 보호하는 그 취지에 못 따라올 정도로 너무 엄격합니다.

또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출생신고제도도 사실상은 무용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출생신고제도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난민인 경우 최근 개헌 논의에 있어서도 난민권 등 해서 인권적으로는 당연히 허락하고 있는 현실 여건에도 우리 아동의 복리를 위한 출생신고제도는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요 바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입니다. UPR, 그러니까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여러 차례 도입을 권고받은 바 있는 제도입니다.

체류자격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출생 그 자체만으로 출생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모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도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명분을 대기는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법무부에서는 또 하기도 하는데, 사실 국적을 주라는 또 다른 정책적인 요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인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고인데도 우리는 진지한 고민이 아직 안 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좀 염려하는 부분은 의료계에서 행정 부담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추론(specul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낙태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염려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전혀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보편적인 출생신고 같은 경우는 사회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얻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의지나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시기도 했는데, 그 책임에서 저는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인식을 공감한다면 제도를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의 틀을 짜고 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다른 제도를 또 고민을 하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삼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하신 바가 아까 뭐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것도 일부의 지적인데 사실상 그것이 유의미한 지적인지도 아직 점검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반 논의를 좀 실질적으로 해 나갔으면 어떨까 고언을 드려 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사실 아동 보호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의 그런 제안에는,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지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른정당의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은 질의 준비를 안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혹시 이번 결산의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지금 저걸 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불용액이 퍼센트가……

○박인숙 위원 아니, 아까 전체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한부모 지원사업에서 90억 5700만 원이 남았고, 안 썼고 아이들 돌봄 불용액이 48억이고 또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하도 '불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미집행' '저조' 이런 단어가 열네 번 등장을 해요.

성인지 결산도 달성률이 저조하고 양성평등문화사업에도 뭘 교부하지 않은 게 있고 경단여성 취업지원사업에 예산이 불용됐고 아동·여성 안전교육에서는 뭐를 실시하지 않았고 뭐가 부진했고 일본군위안부 사업에서 사업 미집행, 총체적 부적정 집행, 가정폭력 피해사업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 참여율이 저조했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예타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청소년시설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데 제주도는 집행률이 6%에 불과하고 또 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은 집행률이 80%고 아이돌봄은 아까 말했듯이 불용액이 58억인가 48억이 나왔지요? 그다음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에는 전액 불용됐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에는 인력충원이 안 됐고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불용액이 많고, 하여간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내년에 예산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번에 추경에서도 38억이 갔거든요. 사실 그때 추경을 보면서 제가 여가부를 보니까 추경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저희가 막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금방 되셨지만 장관 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 말씀을 들으세요. 옆에서 기획실장님 그 숫자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여가부를 혁명적으로 한번 다 보셔야 돼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불용액을 하는데 그것만 합해도 15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체를 위아래를 통째로 뒤집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디에 더 필요한지, 불용이 된 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제가 원래 준비를 한 질문은 조두순 사건으로 이 아이가 여덟 살 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이따가 나오면 애가 스무 살인데 문제는 지금 법·제도로 하면 아이가 있는 집에만 알리게 되어 있거든요. 애가 스무 살이 되면 애네 집에는 안 알려요. 그러면 조두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피해자는 몰라요. 이런 일이 애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거든요. 이것 법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겠지요? 그것 정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범죄피해자기금 있잖아요. 그게 6%인데 지금 3조라는 돈이 범죄자 수사·재판·수용·교화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범피 이것은 너무 작아요. 6%뿐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가부 쪽에서도……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데 이 조두순 사건만 해도 심리치료 못 받거든요. 심리치료에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애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올리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법무부 인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정시설에서 음란물을 보고 이러는데 그런 것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고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나쁜 범죄기법을 배워 가지고 나와 가지고 더 흉악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폭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네들도 이런 것 볼 인권이 있다. 또 시민단체니 이런 기타 단체에서 인권을 얘기하거든요. 감옥에서 음란물을 볼 권리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시지요. 그런 것 나서서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흉한 흉악범이 돼서 교정시설을 나오는 일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교육받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요.

아까 그 불용액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인숙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박인숙 위원 간단히 나오나요, 숫자가 대충?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서면으로 하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추경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교부금에서 저는……

○박인숙 위원 아니, 저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리고 저희가 97%까지 쓴 걸로 제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법무부의 교정시설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신종 성폭력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부에서 와서 사실은 여가부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부분인데 새 정부에 와서는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부의 성교육지침도 지금 교육부랑 같이 TF를 만들어서 다시 수정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종 젠더폭력 부분은 법무부와 세 부처가 같이 하고 있고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몰카 등으로 인해서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데 그것을 과정을 단순화하고 간편화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까도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서요, 아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100대 국정과제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여가부 업무는 여성정책, 권익증진, 가족, 청소년 이렇게 크게 4개 업무인데 이 중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가부가 사실상 관리 감독을 하고 실제 업무는 산하기관과 새일센터와 같은 현장의 전달체계 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의 고용현황을 좀 봤는데요, PPT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청소년 기관은 예외적이지만 나머지 3개 기관은

일이년짜리 계약직 여성노동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제고가 사업목표인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질 낮은 여성일자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담당 서기관과 유선통화를 했는데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이 만들어지고 기재부의 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답변에 기초해 볼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없고 이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조차 전무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미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저희들이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말씀을 안 주시는데 그렇지만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결산보고를 보니까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만 불용될 줄 알았던 일본군위안부 기념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에 그냥 땡처리 되듯이 급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에 해당하는 예산 14억 4000만 원이 이월액으로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장관님 취임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여가부에서 사업을 이미 마치고 평가단계에 들어가도 늦은 시점인 12월에 불용시키려던 기념사업 예산을 서둘러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요. 위안부 기념사업 4개 중 2개는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4억 4000,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5억으로 무려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단 한 번에 지원을 받았는데요, 민간경상보조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시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위반한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정책연구원으로 간 것도 한 팀이 받은 게 아니고 다시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그 돈을 전부 수용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예산은 집행됐지만 그 사업의 중간단계를 제가 다시 점검을 하고요. 그 결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것은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물등재 추진사업이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공모와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여성정책연구원이 4억 4000만 원 지원받아서 추진 중인데 당시 공모를 통해서 경쟁했던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그 대강의 사업계획서만 봐도 전문성이나 수행능력 측면에서 결코 여성정책연구원보다 뒤처지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한일 위안부합의가 없었다면 즉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네스코 기록물등재 추진사업의 추진사업비를 받았을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1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쾌거를 이루지요. 얼마 전에 화제를 모았던 워싱턴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18초짜리 흑백 영상기록물, 만약 여가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했다면 이게 여가부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장관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형식절차상으로는 공고를 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결과로 해당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점수가 나와서 점수화돼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제대로 추출하도록 하는, 나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애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 위안부 관련 자료는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아주 산재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여가부가 이 사업을 발굴·정리·해제 작업으로 한다면 자료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정보를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사업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도 바로 그런 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수행하고 있고 향후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갈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년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중간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년 사업이지만 추후에 계속 될 여가부 사업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닙니다.

○박경미 위원 아니고, 이걸로 끝내신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박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위안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고증자료나 기록물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안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닙니다. 내년에 군 위안부 박물관과 군 위안부 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일차적인 작업은 저희가 박물관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초작업으로는 일단 흩어져 있는 기초자료들을 모으고, 사실은 서울대팀이 가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찾아온 자료도 부분적으로 찾아왔지 가서 뒤지면 계속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연구·기념·수집 부분의 예산을 책정했고 그 작업은 꾸준히 계속 하도록 하겠고 아마 올해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박물관, 기념관 사업 예산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연구소, 연구 예산으로 잡고 자료정리, 자료수집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병행해서 가도록 하지만 군 위안부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시 자료의 수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인순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들어가는 순서인데요,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애초에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신청 예산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불용하다가 그것을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사업으로 변경 집행을 해서 사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과에 대해서 신임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는 반드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런 선정 과정, 여성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서울대 산학협력단과의 이런 것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되었는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연구자의 경력으로 보면 훨씬 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연구자들이 위안부 관련 연구조사 경력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변경 후에 이런 어떤 것을 평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요. 그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여성사박물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여성사박물관이 지금 건립 위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수집이나 콘텐츠수집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부 예산은 굉장히 소액이고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보면 소액인데 이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잘 운영하면 성평등 정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8조에 가까운 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하남 복선전철 지원사업이라든지 버스정보 수집활용 이런 것을 다 성인지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과다 계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작성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인 관점을 담고 그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짠 것에서 성인지 비슷한 것을 골라내서 그냥 덧셈만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아까 성평등위원회를 말씀하셨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예·결산 운영 성과를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피드백을 해서 관련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 아닌데 성인지 예산으로 잘못 카운트가 됐다거나 아니면 성인지 예산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정부부처 평가를 합니다. 정부부처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에 넣는 방식을 생각하셔서, 국무총리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새일센터하고 관련된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센터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새일센터를 별도로 갖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신 대답을 드리면 새일센터라고 하는 것은 육아 같은 것 때문에 단절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일센터의 구직자 현황을 보면 40대, 50대의 구인·구직을 굉장히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 통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은 당연히 30대가 많습니다. 30대가 50% 이상이고 사실은 50대에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사람은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새일센터가 실질적으로 구직을 해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은 다 4·50대를 연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건 새일센터가 새일센터의 일을 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하는 일을 그냥 대신하고 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새일센터에 맞는 역할을 좀 제대로 정립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새일센터,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고용센터하고 새일센터 간 알선 취업실적 비교해 놓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준 자료랑 이 자료랑 통계가 완연하게 틀려요. 그래서 어떤 통계가 맞는지부터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새일센터 취업실적도 사실은 취업률이 자꾸자꾸 나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종별로 취업 유형을 보면 주로 많이 취업을 시키는 게 사무, 회계 뭐 이런 쪽인데 새일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랑은 전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고 저기 통계에서도 보시지만 구인을 요구하는 데가 구직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인을 저렇게 많이 요구하는데도 취업률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구인하고 구직하고를 제대로 매칭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제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떤 쪽의 구인이 많은지를 보셔서 그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매칭시키는 것으로 새일센터 운영체계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을, 시간이 지나서 답을 어떻게 서면으로 받을까

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남인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자세하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제 4·50대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좀 통계상으로는 있지만요 제가 현장을 가 보고 느낀 것은 새일센터의 기능을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예를 들면 뭐 대학로에 있는 새일센터는 2·30대 대졸 출신자가 하고 고부가가치 쪽의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농촌에 가까운 지역에 가면 또 40대, 50대가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맞춤 서비스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강조되고 있지 않은데 새일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은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만두지 않게 하는 그 예방 과정도 굉장히 필요해서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하나는 새일센터를 나와서 취업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컴퓨터나 최종 고부가가치 부분은 6개월, 1년 단위를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그들을 좀 재교육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나오는 기술과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매치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KAIST와도 좀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계로 보면 3개월 근속 유지율이 3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용직 공급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고용센터하고 이걸 차별화를 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작년에 저희 여가부가 조사해 본 바로는 경단여성들 취업한 경우에 1년 후에 취업률은 50%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그것도 새일센터에 따라서 또 다양하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통계도 저희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에서는 1년 이상 근속이 오십 몇 %라고 주셨는데 여기 예산정책처에서는 아니거든요. 3개월이 35%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도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남인순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장관님, 여가부에서 젠더폭력 관련해서 범부처 종합대책회의 8월 1일에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젠더폭력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데 이 관련된 통계체계를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2012년 현재 32.2%인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7년에 25.7%로 낮추겠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여가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가정폭력 재범률이 3.8%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600% 이상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지요. 그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25.7%가 목표였는데, 그런데 같은 기간 가정폭력 건수가 2012년 8762건에서 16년에 4만 5812건으로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올 5월에 여성가족부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물론 여기서 신체적 성폭력이 뭔가라는 것에 따라서는 이 통계가 맞을 수도 있는데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3년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방문 면접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계가 신뢰하기 어려우면 이게 정부종합대책 세우는 데 혼선을 빚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시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통계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 이유하고 이 통계체계 부분을 좀 정리하는 계획을 저희 방에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은 내용을 주셔서 저희 방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돌봄 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종사자 간에 법률분쟁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이번에 관련해서 2건의 소송 중

에서 지난 7월 5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 관련된 소송에서 2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아이돌봄 수행기관이 지금 사용자로 인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근로자성 인정으로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인데 이 분들이 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여가부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입장을 좀 밝혀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 권한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교섭 거부나 해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 중에서 170개소가 위탁 반납을 결의했다고 그러고 재위탁을 앞두고 있는 기관도 91개소나 되는데 이것 명확한 입장을 여가부에서 빨리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단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서비스 기관들에게 노동3권을 인정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안내와 지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서비스 기관과 노조가 어떻게 상생할 건가를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여가부가 그걸 조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미 최저임금이 사실은 753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권미혁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기존의 6500원에서 일단 임금은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예산확보와 더불어서 처우개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후에 최종적으로 여가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지자체나 서비스 기관에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먼저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게 좀 혼란 있는 것 아시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리대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관심으로 추경도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했는데 복지부의 16년도 저소득 생리대 지원사업 집행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 보니까 실집행률이 60.5%에 불과해요. 18년부터 여가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하기로 했는데 이것 지금 안 하는 거지요, 500억 안 돼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는 부분을 여가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하기로 했는데 복지부 사업이 지금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거든요.

이 예비타당성조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00억 원 이상이 안 돼서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정부안을 9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남인순 담당자 나와서 설명 빨리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청소년정책관 조진우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 없이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저희는 이것을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내년에 하도록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전에는 현재 복지부에서 하듯이 현물 지원을 하면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내년에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지부 지원사업이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졌어요? 시설 이용 청소년이 지원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뭐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복지부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지만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할 때에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그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서 현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러면 바우처 이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예.

○권미혁 위원 바우처 카드 발급절차가 까다로우면 이게 발급률도 낮아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예,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쨌든 장관님께서 생리대 지원사업의 핵심이 청소년 이용 시설이든 가정 밖 청소년이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없게 하고 낙인감 없이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권미혁 위원 그 부분을 좀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시고 복지부 사업 집행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위원장 남인순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던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지금 90억 5700만 원이던가요, 그 정도의 불용이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출산 등으로 지급대상이 감소됐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출산 추세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더군다나 보면 2016년에는 7만 5000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8만 1260명 해서 한 6000명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대상자도. 그런 걸 보면 예산도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아동에 대한 추계를 여가부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지원대상 발굴에 좀 소극적이었거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용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의 폭을 좀 넓힌다든지, 지금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부모라든가 이런 경우는 생계가 힘들어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도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2016년에 예산서상으로는 7만 5000명이었는데 결산서상의 실제 수요는 6만 5023명이니까 사실은 1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7년에 예산서상 계획은 8만 1260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집행 중인데요. 저출산 등등의 요인으로 계획보다 집행인원이 감소할 경우에는 18년에는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치를 산출해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이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산이고 또 집행에 불용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최근에 모든 아동에게, 0세에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이 충분하면 뭐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부모가족에게도 불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화면을 해 봐 주시겠어요?

화면 준비되나요?

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자를 보면 1만 2563명이고 그중에 수검을 한 사람은 6986명, 55.6%가 수검률로 나와 있거든요. 재학 중인 학생들은 청소년 보호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이 시행되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가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검률이 55.6%에 그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저는 역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갖는 어려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진결과 파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 결과 열람은 해당 청소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고려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건강검진 신청자를 지원센터로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는 스트리트 워커(street worker)의 수가 늘어나면 사실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지금 건강검진 사업비를 보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보면 홍보 관련된, 전체 다 하면 홍보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내문 해서 1억 5000 정도 돼요. 그러면 결국 홍보비에 들어간, 지금 말씀하신 것도 홍보와 관련된 것 같은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홍보비에 들어가는 게?

잘 모르시나요?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올해 예산에서?

○김삼화 위원 아니, 작년에.

올해든 작년이든 홍보비로 얼마나 들어가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3000만 원?

그런데 그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이 될지도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검진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도 질환 의심자가 계산을 해 보면 한 1475명, 21.5%가 각종 질환이 의심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밑에 보면 선택검진 유소견 현황 보면 거기에 매독 혈청에서 9명이 나와요. 이 경우에 이들에게, 매독 의심자한테 재검 받고 질환 치료할 수 있게 어떻게 적극적인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도권 내일 경우에는 어떤 건강검진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좀 조력을 해 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출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력기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밖센터 같은 조력기관에서 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하는 것이 여가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인순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위원 장관님, 현재 여가부 내의 복지지원과에 대한 내부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박경미 위원 이 복지지원과가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수행했던 과니까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로 점검단을 꾸렸다고는 하는데, 그 활동계획을 보니까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일단 외부인도 아닌 부처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구성했는데 글쎄요,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지 않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지급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정대협이 제기한 문제 있지요? 뭐 할머님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자식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했다든가 등등의 여러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객관적인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가 나오면 발표도 할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만으로 점검단을 꾸리셨어도 그러면 엄정하게 조사하시고 철저한 감사, 재발방지대책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 을숙도에 짓기로 한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립 있지요? 그 결산 내역을 보니까 총사업비 15억 원 중에서 12억 1600만 원이 이월됐고요, 2억 8400만 원이 불용이 되면서 결국은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119억 6900만 원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2억 5000만 원만 집행이 된 상태인데요.

워낙 을숙도 수련원이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 준공 예정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6월 기준 실시설계조차 완료되지가 못했고 공사 및 감리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총사업비가 2016년 6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 설계공모를 2016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냈고, 그래서 설계용역 계약이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 일정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박경미 위원 그런데 그 늦어진 게, 제가 부산일보 5월 2일 자 보도를 보니까요 문화재청이 을숙도 수련원 건축을 불허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을숙도가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 10명이 다 불허로 판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불허 판정을 상쇄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로 건립 허가를 현재 받은 것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게 7월 27일 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런데 부산시 시민사회에서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높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막무가내 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100% 국가예산으로 건립이 되는 거니까 수련원 유치에 아무래도 혈안이 될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가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해서 준비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수백억 국가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여가부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청소년정책관 조진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철새 도래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데에서 수련을 하는 목적과 또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돼서 결국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고 내년에야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경미 위원 공사는 시작될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져서 계속 이월·불용액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금년에는 아마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사실은 봉화에 건립 예정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거기도 계속 지연이 되고 이월·불용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조진우 봉화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봉화군과 경상북도하고 협력을 해서, 이번에는 토지 매입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

다.

○박경미 위원 봉화하고 을숙도도 다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셨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위원장 남인순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 예산 배정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예타 없이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무리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거의 끝났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김태석 이사장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예.

○위원장 남인순 간단한 것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그 업무보고 자료는 기본적인 틀인데요, 보통 조직이나 정원 분야에서 반드시 성별 통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가원 것만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앞으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그리고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도 그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한가원의 직급보조비를 3억 1400만 원 해 드렸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올리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동의를 해서 올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불용되는 과정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이사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 기재부에 몇 번 직접 찾아가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지난해 한가원에서 육아휴직 대체직별, 육아휴직이 한 10여 명 발생하고 즉시 채용이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열한 번의 채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의 시차 발생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해서 직급보조비를 그걸로써 반영을, 지급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받지 못했고, 다만 금년도 예산안부터는 정부안에 반영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국회에서 이렇게 올려 준 부분을 제대로, 여성가족부하고 또 진흥원에서 제대로 예산을, 더구나 실제로 거기가 법인이 바뀌면서 이런 예산을 국회에서 올려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도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그 과정, 경과를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무숙 원장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예.

○위원장 남인순 양성평등주간에 여성사 전시관에서 전시한 것 중에서 친일 논란이 있는 인사 문제 알고 계시지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예, 박경원……

○위원장 남인순 박경원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사실 있었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국가보훈처나 공군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비행사자격증을 박경원보다 먼저 딴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박경원 씨에 대해서는 친일 논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최초 여성비행사라고 해서 그대로 전시를 했습니다. 권기옥 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훈처에서 이미 알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시를 계속적으로 했는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무숙 그것은 아마 주의 깊게 못한 것 같습니다.

최초의 민간 비행사가 박경원 비행사였고, 그냥 최초의 비행사는 권기옥 비행사였는데요. 그 설명자료에 '민간 비행사'라고 밑에는 쓰여 있는데 제목에 그렇게 못 한 그런 기술적인 오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시가 양평주간에 성남시청에서 돈을 대고 잠깐 한 그런 전시다 보니까 저희 본원에서는 그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규모 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을…… 잘했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춘석 위원님 질의……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인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제가 질의서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장관님께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던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정책·인력 이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 여성가족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시작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끝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시지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으시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에게 쌓여 왔던 적폐 문제들을 완전히 확인하고 파악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국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진행할 때 막연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 갖고는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준비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인순 지금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보도자료로만 내기는 했지만 화해·치유재단 관련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께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제가 서면으로 다 질의를 낼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면서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 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소속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의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미혁	금태섭	김삼화	김승희
남인순	박경미	박인숙	박주민
신보라	신용현	윤종필	이양수

이 재 정　　이 정 미　　임 이 자　　정 춘 숙

○청가 위원(1인)

송 희 경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남 궁 석
입 법 심 의 관	차 인 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장 관	정 현 백
기 획 조 정 실 장	이 기 순
여 성 정 책 국 장	박 난 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 애 리
권 익 증 진 국 장	이 정 심
대 변 인	김 중 열
정 책 기 획 관	황 윤 정
청 소 년 정 책 관	조 진 우
가 족 정 책 관	윤 효 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민 무 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신 은 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장 정 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 태 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강 월 구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명연	김승희	자유한국당	2017. 7. 27.
김순례	이양수	자유한국당	2017. 8. 14.

○의안 회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7월 12일 회부됨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7. 14. 유승희・이종걸・원혜영・김현권・소병훈・윤후덕・권미혁・김종민・송기헌・김상희・강창일・정성호・김두관・신창현・정춘숙・이용득・진선미・김종대 의원 발의)

7월 17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17. 김삼화・이찬열・손금주・박주현・채이배・황주홍・박준영・김광수・최경환(국)・김경진・정인화・김종회・신용현 의원 발의)

7월 18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18. 김삼화・김관영・김경진・정인화・김종회・신용현・장정숙・박주민・박준영・손금주 의원 발의)

7월 19일 회부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7. 28. 김삼화・신용현・주승용・김수민・황주홍・정동영・박준영・박선숙・김관영・장정숙 의원 발의)

7월 3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7. 31. 김민기・강훈식・권미혁・김병욱・김정우・노웅래・민홍철・박남춘・박정・서영교・손혜원・신창현・오영훈・유은혜・정성호・제윤경・조승래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7. 31. 김상희・송옥주・기동민・권미혁・소병훈・인재근・윤관석・윤소하・정춘숙・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일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8. 1. 황주홍・주승용・김삼화・송기석・최명길・이찬열・김관영・김광수・김종회・김중로 의원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8. 1. 소병훈・홍익표・강창일・이찬열・민홍철・추혜선・홍의락・정춘숙・김병욱・임종성・김현권・서영교・김정우・전현희・박정・김철민・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일 회부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7. 8. 7. 유은혜・김병욱・김민기・조승래・신경민・정춘숙・정성호・민홍철・윤소하・

신창현·원혜영·손혜원·소병훈·김정우·박정 의원 발의)

8월 8일 회부됨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표창원·김종민·정성호·김영호·김경협·신창현·박경미·민병두·유승희·송옥주·이원욱·어기구·안민석·위성곤·박정·손혜원·오제세·김철민·김정우·홍의락·소병훈·박재호·박남춘·윤소하 의원 발의)

8월 9일 회부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8. 9. 남인순·김삼화·윤관석·강훈식·김종대·민홍철·추혜선·전현희·박정·장정숙·임종성·우상호·원혜영·강창일·박주민 의원 발의)

8월 10일 회부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7. 8. 11. 김선동·김규환·윤한홍·정갑윤·나경원·이종명·정태옥·신보라·홍일표·장석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8. 11. 정춘숙·남인순·유은혜·박정·윤소하·박주민·홍의락·송옥주·김현권·양승조·신창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7. 26. 정부 제출)

7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8. 9. 홍의락·이개호·변재일·김병관·김정우·오제세·김현권·박재호·손혜원·유동수·박정·조승래 의원 발의)

8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8. 11. 강창일·김민기·권미혁·조배숙·박용진·정성호·강훈식·김해영·박정·전혜숙·윤관석·김정우·위성곤·박찬대·원혜영·박재호·김철민·표창원·홍의락·주승용 의원 발의)

8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